

대한양계협회소식



폭우 피해 농가 방문

본회 최준구 회장은 7월말 큰 비 피해를 입은 화성시 양계농가들을 방문하여 아픔을 함께 나눴다.

지난 8월 8일 최준구 회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계원농장(대표 한수철)과 카오스를 방문하여 피해상황 파악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격려의 말을 전하며 위로금을 전달했다.



▲ 계원농장 방문, 한수철 사장에게 위로금 전달



▲ 카오스를 방문, 강석부 사장에게 위로금 전달

계원농장은 수해피해 당시 뚝방에 토사가 무너져 내려 계사가 물에 잠겨 초생추 12,000수가 폐사 했으며 열기구, 기자재 등의 파손피해를 입었다.

안성지역 카오스의 계열농가들은 이번 비피해로 토종닭 3만여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날 방문한 자리에서 강석부 사장이 대표하여 위로금을 전달 받았다.

종계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관련 정부질의

지난 8월 9일자로 본회에서는 가금티푸스 백신사용과 관련하여 농림부에 몇 가지 사항들을 질의하였으며 농림부 가축방역과(이주원 주무관)에서는 지난 14일 삼화육종과 사양가들(박태원 흥성지부장, 이병현 동우 이사)을 만나 가금티푸스 현장상황을 조사·파악하였다.

질의 사항으로는 △음성적인 가금티푸스 접종 종계농가에 대한 대책, △가금티푸스 백신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종계에 가금티푸스 백신사용시 단계대로 인한 실용계 피해 여부, △가금티푸스 백신 허용시 문제점, △효과적인 종계장의 가금티푸스 예방대책 등이다.

농림부에서는 자세한 조사를 거쳐 질의사항을

본회로 회신할 예정이며, 본회에서는 9월에 위생방역대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가금티푸스 예방대책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GPS 수입물량 증가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지난 9일 본회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GPS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분과위원회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통계자료상에서는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생산성이 낮은 상황이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일부 회원중에는 많은 물량들이 들어와 경쟁을 통해 우수한 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에 종계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결국 지금까지 생산성이 낮았던 것을 염두에 두어 품질이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종계장 시설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종계 가금티푸스와 관련 가금티푸스가 발생한 농장에 보상책이 쉽지 않아 발생한 농장에

서 살처분을 해야 함에도 이행되지 못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가금티푸스 근절차원에서 보다 수월한 보상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육계분과위원회
(유)홍림 시범 농장 계획 발표



지난 16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다. 회의시작에 앞서 하림과 공동 사육기술로 육계농장 2~3개소 시범 운영을 하게 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홍림(대표이사 백승운)의 계사신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유)홍림의 신축계사 설립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광삼씨를 포함해 대부분의 위원은 계획중인 종계육성농장이 육계사육 시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농가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설립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육용실용계 8월 생산잠재력은 전년 동월대비 17.9%가 증가하고, 2007년 2월 생산잠재력은 전년동월대비 3.9%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6월 삼계 입식수수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20,000천수가 입식되었고, 닭고기 수입실적은 전년동월대비 6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육계의무자조금의 추진상황으로 관리위원(안)을 3단계장 협의 후 대의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육계분과위원으로 심순택, 정흥모, 정귀섭 위원에서 당진지부 이홍재씨로 재조정 되었다. 그 외 육계의무자조금 실현과 육계산업 정책개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 차후 논의키로 하였다.

육계자조활동자금준비위원회 실무자회의

지난 7월 28일 본회의회의실에서 육계자조활동 자금 준비위원회 실무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농협, 계육협회 실무자들이 모여 관리위원 선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리위원 선정안 내용으로 전차 회의결과에 의거 관리위원을 10으로 추천하자는 안건과 10명 기준으로 관리위원을 추천했으나, 최종 관리위원 선정에 이견이 있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대의원 수가 20명 이상인 도(경기, 충남, 전북)에 1명씩 추가배정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후 관리위원 선정 최종 결정은 차기 실무회에서 재협의키로 하고 사전에 각 단체별 관리위원 추천자 명단을 제출키로 했다.

본회 이종길 전무, 안일농장 방문 가공산업 발전 필요성 인식

지난 10일 본회에서는 연천에 위치한 안일농장(대표 안영기 동양연 부지부장)을 방문하여 액란가공공장 시설을 견학하였다.



경기도 연천에서 산란계 18만수 규모를 경영하고 있는 안일농장은 하루에 생산량이 12만개에 달하여 냉장처리 시설이 완비된 GP센터와 월 15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액란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안영기 부지부장은 냉장시설로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고 액란으로 가공하여 봄·가을 수요가 증가하는 제과업체에 납품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안일농장은 5백평 규모의 냉장시설을 이용해 오랜기간 저장이 가능해 상인들과의 거래시 유리한 조건으로 계란을 납품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 '내츄럴에그(Natural Egg)'를 출시하고 있다.

안영기 부지부장은 "액란공장과 냉장시설은 양계산업 경쟁력을 위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초기 시설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양계산업 시설투자에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부 · 지회 소식)

포천채란지부 회원 단합대회 개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지치기 쉬운 여



◀ 오세을 지부장

름 포천채란지부(지부장 오세을)는 지난 7일 산정호수 정수유원지에서 70여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위를 식히며 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부부동반으로 마련된 산정호수 정수유원지에서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오세을 지부장을 비롯해 포천시장과장, 포천축협사무, 이광표 아름다운농장만들기 대표 등의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쓰자고 다짐했다.

동양연지부

연천에서 야유회 개최



동양연지부(지부장 송복근)는 지난 10일 연천 소재 첫마루 식당에서 회원 및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연지부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송복근 지부장을 비롯해, 이종길 분회 전무, 오세을 포천지부장, 연천군청 장락청 축산계장, 정충언 농림축산과장, 양주시청 정장석 축산계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자리에서 각회원들과 관계자들은 점심을 함께하며 지역 양계발전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8. 2 축산화관 관련 3개단체장 간담회
- 8. 2 산란계자조금 관련 업무협의
- 8. 3 로스종계 위생· 사양기술세미나
- 8. 4 한미FTA 협상관련 농업계 대토론회
- 8. 8 (유)한국원종 GPS 부회장 준공연
- 8. 9 8월 종계부화분과위원회
- 8.16 8월 육계분과위원회
- 8.17 축산단체장 회의
- 8.18 축단협 제3차 대표자 회의
- 8.22 농·축·수산물 식자재 대토론회
- 8.23 지방세(도축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 8.24 제 11회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 8.25 '06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